



12면

현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전주매일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음 11월 10일) 제26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익산시,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

신개념 '연어 프로젝트' 추진

'농촌 마을연금'
전국 최초로 도입
민관 공동 추진키로

마을공동체 참여하면
월 10~15만원 사이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문제 극복 '일석삼조'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신개념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16면>**

농촌지역 마을공동체가 참여만 해도 매월 정기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연금'은 어려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 복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익산시는 전국 최초 농촌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연금 지원사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어렵게 설득해 이뤄낸 이번 사업은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로 불린다.

익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시골 마을공동체가 공동 추진하게 되는 마을연금은 고령화로 취약해진 시골 마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무너진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참여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마을개발공사,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코로나19 보건 위기 극복"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간·직능단체 보건위기 경제건설환경농업분야 극복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9개 분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솔테크닉스 등이다. 시는 시골 마을에 형성된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지원에 나선다. 예컨대 공동체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면 일정 비율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국민연금에 기금관리를 맡기게 된다. 마을공동체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은 어렵지 않은 일손을 보태며 마을 화합을 다지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설득해 협약을 맺고 구체적 세부 사항 논의를 거쳐 1년 여 만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령화 문제, 핵가족화와 독거에 따른 노인 소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와해, 농촌인구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

특히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에 정착하면 70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 연금을 받으며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서 "어려워져가는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화합하며 중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후속조치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전북도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간, 범정부적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행사에 대해 단거·중점적 특별대책을 강력 시행해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정부 대책에 앞서 무주 향로산 해맞이 행사 등 주



2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현행정무부지사가 연말연시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특별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해님이·해맞이 행사 취소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중고시설 행사 비대면 원칙
스키장 등 운영 중단 조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 10개 해님이·해맞이 행사를 선제적으로 취소했고, 188개소의 해님이·해맞이 관광명소에 대해 주차장 폐쇄와 입장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전북산악연맹 산하단체 322개소에 해님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및 입장금지 등 연말 산악모임 자제를 요청했으며, 제야의 종소리 행사와 도와 시·군의 종무식·시무식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를 권고하고,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식당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업소별 홍보를 요청했다.

겨울철 밀집이 예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와 타지역 방문자 출입제한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가족호텔과 휴양콘도 등의 예약율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50% 미만이며, 예약기준을 초과한 업소 1군데(무주 나뭇리조트)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조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 관광호텔을 이용한 각종 파티가 예상되므로 3성급 이상 호텔(7개소)에 대해서는 예약이용자를 파악해 취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업소의 영업 피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4대 종교단체에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공문, 전화, SNS를 통해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고, 교인 내도수 300명 이상 주요교회(100개소)에 대해서는 도청 실국장이 직접 협조 요청 중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2일 무주군과 협의해 운영중인 스키장(1개소)과 눈썰매장(2개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조치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중단 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에 대해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6일 기 발령했으며,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1:1 배정 등을 통해 철저한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은 전국은 물론, 도내 어떤 곳도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2주 연속 노로바이러스 검출... 개인·식품위생 철저히 | 전북도, 바이러스 '주의' 당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49주차와 50주차의 급성설사 질환 감시사업을 통해 접수된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연속으로 검출됨에 따라이다.

연구원은 매년 '급성설사 질환 감시사업'을 진행, 매주 감시사업 참여병원에 내원한 설사질환 환자에 대한 원

인병원체 감시를 통해 도내 설사질환 병원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지하수나 물의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열하 20°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 가능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계

울철 대표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는 끓이나 지하수와 같은 바이러스의 오염위험이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70°C 이상에서 5분, 100°C 이상에서 1분간 가열해 섭취하도록 해야 하고, 사람 간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손 씻기와 같은 개

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굴과 같은 어패류를 손질했을 경우, 접촉한 조리도구들도 철저히 소독해 조리도구를 통한 전파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유호상 기자

성탄절 연휴로
28일자 까지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